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가 멀리 있더라도, 기억하면서 지내면 그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 기억을 통해서 그의 동반을 경험하고, 너희의 죄도 또한 없어진다.

질문: 가장 먼 나라에서 오는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이 아주 먼 데까지 볼 수 있게, 어떤 지식을 주느냐?

대답: 오직 머나먼 나라의 주민인 아버지만이 영혼들이 사이클에서 어떻게 다양한 신분 계층(카스트)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브라민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전에, 이 지식을 가지기 전에는 너희가 슈드라 계층에 속했었다. 그 전에는, 상인 계층에 속했다. 머나먼 나라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왔고, 너희 자녀들에게 완전한 지식을 주어 너희가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만든다.

노래: 사랑스러운 분과 함께 있는 자들 위에 지식의 비가 내리네.

음 산티. 지식의 비는 지식의 대양과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해 내린다. 너희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렇지 않느냐? 비록 해외나 다른 어떤 곳에 있다 해도, 너희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를 기억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를 기억하며 머무는 자녀들은 항상 그와 함께 한다. 이 기억 속에 머뭇머뭇, 그와 동반하면서 지내면 너희의 죄가 없어진다. 그런 다음에 비크라마지트(악덕을 정복한 자들)의 때가 시작된다. 라반의 왕국이 시작될 때를 비크람 왕의 때(죄를 짓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말한다. 하나는 악덕에 대한 승리의 기간, 다른 것은 악덕의 기간이다. 너희들은 지금 죄 되는 행위의 정복자들이 되고 있다. 훗날 너희가 죄 짓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현재는 모든 이가 극히 죄가 많다. 아무도 그들 자신의 종교에 대해 알지 못한다. 오늘, 바바가 너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한다: 황금시대의 신인들은 그들 자신이 본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에 속한다는 것을 아느냐? 너희들이 제 자신을 힌두교에 속하는 자들로 여겼었고, 저들은 자기들이 기독교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의 신인들은 그들 자신이 신인 종교에 속한다고 여기겠느냐? 이는 생각해봐야 할 점이다. 거기에는 다른 종교가 하나도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이러 저러한 종교에 속한다고 여길 사람도 없다. 여기에는 종교가 많아서, 각자가 받은 이름으로 사람들을 서로 인식할 수 있다. 거기에는 오직 그 종교 하나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특정한 종교에 속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종교가 있다는 의식조차 없는데, 오직 그들의 왕국만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본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에 속한다는 것을 지금 이해한다. 다른 이들은 신인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불순하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를 신인이라 부를 수 없다. 오직 순수한 이들만이 신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 거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들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합류시대에 있으며, 본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곳에는 그 종교뿐이니, 종교에 대해 무슨 의문이 있을 수 있겠느냐? 거대한 멸망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 역시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었다.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옳은 것을 설명한다. 경전에는 대홍수가 묘사된다. 아버지가 설명한다: 바라트를 제외한 모든 곳이 홍수로 범람한다. 그렇게 까지 큰 세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바라트에만도 얼마나 많은 마을들이 있는지 보아라! 처음에는 그것이 숲이고, 그런 다음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 오직 너희, 본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에 속하는 이들만이 그곳에 거주한다. 이것이 너희 브라민들의 지각에 들어 있다. 바바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혼잡하도록 고쳐한다. 이제 너희들은 높은 중에 가장 높은 시브 바바가 누구인지 안다. 그가 왜 숭배되며, 왜 엽 꽃 등을 그에게 바치느냐? 그는 무체다, 그렇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가 이름과 형태를 초월해 있다고 말하지만, 이름이나 형태가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꽃을 바치느냐? 처음에 숭배 받는 그분에게다. 그에게 사원들을 지어 바치는 것은, 그가 특별히 바라트의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기 때문이다. 봉사를 받는 자들은 인간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때에는 너희 자신들을 신인 종교에 속한 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이 신인들이었고, 지금 다시 한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예전에는 몰랐다. 아버지는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너희에게 이 지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라. 오직 그만이 “지식의 대양, 지식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불린다. 리쉬나 무니들조차도, 아무도 창조주나 창조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이 기억된다. 그들은 "네티, 네티(창조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말만 해 왔다. 어린 아이들에게 지식이 있느냐?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지각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외국 땅이 어디에 있고, 다른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등이 그들의 지각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너희 자녀들도 전에는 이 무한한 지식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 이 사람 역시 말한다: 비록 내가 경전들을 공부하곤 했지만, 나는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인간들은 이 드라마의 배우들이다. 연극 전체가 두 가지, 즉 바라트의 패배와 바라트의 승리에 기반을

둔다. 황금시대 초기에, 바라트에는 순수한 종교가 있었다. 지금 이때에는 종교가 불순하다. 불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신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 자신을 슈리 슈리라고 칭한다. 그렇지만, 슈리는 고귀하다는 의미다. 고귀하다고 불리는 것은 순수한 신인들이다. "신이 고귀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누가 슈리(고귀하)냐? 아버지를 친히 대면하여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고귀해진 이들이냐, 아니면 제 스스로 슈리 슈리(두 배로 고귀한)라고 칭하는 자들이냐? 사람들은 아버지가 완수한 임무로 인해 그분에게 주어진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부르기조차 한다. 이 모든 것이 세부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말한다: 자녀들아, 한 아버지를 계속 기억해라. 이것이 마음을 훈련하는 만트라다. 라반을 정복함으로써 너희는 세계의 정복자가 된다. 반복해서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고 여겨라. 5원소로 이루어진 이 몸은 여기에서 만들어졌다. 몸이 만들어지고, 몸을 벗고, 그 다음 다른 몸이 만들어지지만, 영혼은 불멸한다. 불멸하는 너희 영혼들은 합류시대에 불멸하는 아버지로부터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다. 장애가 얼마나 많은, 또는 마야의 폭풍이 얼마나 많은, 그저 아버지를 계속 기억하며 머물러라. 너희들이 사토프라단했고 지금은 타모프라단해졌다는 것을 너희는 이해한다. 너희들 중에서도 역시 등수대로 이 지식을 이해한다. 너희들이 신봉을 처음 행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지각으로 이해한다. 맨 먼저 신봉을 한 자들이 틀림없이 시브 바바에게 사원들을 지어 바쳤을 텐데, 그들이 부유했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왕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왕들과 백성들도 모두 똑같이 했다. 이 모든 것이 세부적인 사항들이다. "1초 만의 해방된 삶"이라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설명하는 데는 아주 여러 해가 걸린다. 지식은 쉽다. 지식은 기억의 순례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소리쳐 부른다: 바바, 오셔서 불순한 저희를 순수하게 만들어 주소서. 그들은 "바바, 저희를 세계의 주인들로 만들어 주소서"라고 외치지는 않는다. 모든 이가 "불순한 저희를 순수하게 만들어 주소서"라고 소리친다. 황금시대를 순수한 세계라고 부른다. 이 세계는 불순한 세계라 불린다. 저들은 이 세계를 불순하다고 하면서도, 그들 자신을 불순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남들이 요리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들은 묻는다: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란 말입니까? 아! 그러나 너희 스스로 "모든 이는 불순하다"라고 말한다. 너희 스스로 자신들은 불순하며 신인들은 순수하다고 말한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를 불순하다고 부를 것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감로를 버리고 독을 마시겠느냐?"라는 말이 기억된다. 독은 해롭다, 그렇지 않느냐? 아버지가 말한다: 이 독이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너희에게 슬픔을 일으킨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것을 독이라고 여기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중독을 끊지 못하는 중독자 같고, 술을 끊을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 같다. 병사들이 전쟁터에 출전할 때면 그들이 흥분되도록 술을 먹인다. 그리고 나서 전쟁터로 내보낸다. 일단 취하면, 그걸로 다 된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고 느낀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종사들은 폭탄을 싣고 어디든 날아가서 폭탄으로 폭발한다. 미사일의 전쟁이 있었던 것이 기억된다. 너희들은 바로 그것들을 지금 실제로 볼 수 있다. 전에는 사람들 뱃속에서 미사일이 나왔으며,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단지 읽기만 했었다. 너희들은 이제는 누가 판다바들이었고, 누가 카우라바들이었는지를 이해한다. 천국의 주민들이 되려고, 판다바들은 살아 있는 동안에 육체의식을 녹여버리려고 노력했다. 너희들은 지금 낡은 신발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낡은 신발을 벗고 새로운 신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느냐? 아버지는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설명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매 사이클마다 온다. 내 이름은 시바다. 시바의 탄신일이 경축된다. 신봉의 길에서는 사원들 등도 또한 많이 지어졌다. 그에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주어졌다. 여신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주어졌다. 너희들은 지금의 때에 숭배 받는다. 너희들이 숭배했던 분이 지금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오직 너희 자녀들만이 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숭배했던 락쉬미와 나라얀이 되고 있다. 너희들은 지각에 이 지식을 갖고 있다. 계속 그것을 되새기고, 남들에게 들려줘라. 이것들을 훈습할 수 없는 자들이 너희 중에 많다. 바바가 말한다: 너희가 아주 많이 훈습할 수 없다해도, 괜찮다. 너희들은 기억하는 훈련을 한다, 그렇지 않느냐? 아버지 한 분만 계속 기억해라. 지식을 말할 수 없는 자들은 여기 앉아서 이것들을 되새겨야 된다. 여기에는 굴레나 복잡한 문제가 없다. 너희들이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 등의 분위기 때문에 도취감이 사라진다. 여기에서는 너희가 그림들 등도 역시 본다. 이 그림들을 가지면 누구에게든 설명하기가 아주 쉽다. 저 사람들은 기타 등을 통째로 외운다. 시크 교도들은 그란트 경전을 암기한다. 너희들은 무엇을 외우려느냐? 아버지다(그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은 심지어 "바바, 이것은 완전히 새롭습니다"라는 말도 한다.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한 아버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이 유일한 때다. 5천년 전에도 역시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줬다. 다른 이들은 아무도 이런 식으로 설명할 힘이 없다. 오직 한 아버지만이 지식의 대양이다. 다른 누구도 이

것이 될 수 없다. 오직 지식의 대양인 아버지만이 이것을 너희에게 설명한다. 오늘날에는 이러저러한 화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진리를 세우는 데 참으로 장애가 많은 이유가 그것이다. 그렇지만 "진리의 배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기억된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에게로 왔다. 그러므로 크나큰 행복을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전에 너희가 순례 길에 오르곤 했을 때, 가슴에 무엇을 느꼈었느냐? 지금 여기에 오려고 가정을 떠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들은 밥다다에게 가고 있다. 아버지는 이것 역시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저 시브 바바라고 불린다. 내가 들어온 사람은 브라마다. 계보의 나무가 있다, 그렇지 않느냐? 먼저 브라민의 계보의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인들의 계보의 나무가 있다. 머나먼 나라의 거주자인 아버지가 지금 너희 자녀들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자들로 만들고 있다. 너희들이 전체 사이클에서 어떻게 다른 신분계층으로 들어가는지 너희 영혼들은 이제 안다. 오직 멀리까지 내다보는 아버지만이 이 지식을 줄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브라민 계층에 속하는지, 그 전에 지식이 없던 때에는 어떻게 슈드라 계층에 속했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는 너희의 고조부다. 너희들은 위대한 슈드라였었고, 위대한 상인들이었으며, 위대한 용사들이었다. 그 전에는 위대한 브라민들이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이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을 먼 데까지 내다보는 지식이라고 부른다. 머나먼 나라의 주민인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머나먼 나라의 모든 지식을 주려고 왔다. 너희들은 우리의 바바가 먼 나라에서 와서 이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외국, 낯선 왕국이다. 시브 바바는 그 자신의 몸이 없다. 그는 지식의 대양이다. 그는 천국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크리슈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오직 시브 바바만이 그것을 줄 수 있다. 크리슈나는 바바라고 불릴 수 없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왕국을 준다. 오직 너희 아버지에게서만 너희가 유산을 받는다. 저 모든 한정된 유산들은 이제 끝나고 있다. 황금시대에 너희는 21생의 유산을 합류시대에 차지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반 사이클인 21생을 위한 유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너희의 유산은 완전한 너희의 수명(각 생애)을 의미하는 21세대 동안 지속될 것이다. 너희들의 몸이 낡아지면, 마치 뱀이 낡은 허물을 벗고 새 것을 받듯이 정확한 때에 너희가 그것을 벗을 것이다. 우리가 배역을 연기하는 동안에 우리의 의상도 이제는 낡아버렸다. 너희들은 참된 브라민들이다. 봉봉거리는 나방으로 언급되는 자들이 너희이다. 벌레들을 너희 자신들처럼 브라민으로 만든다. 벌레들을 이리 데려와서 봉봉거리며 이 지식을 들려주라는 얘기를 너희가 듣는다. 봉봉거리는 나방은 지식을 봉봉거리며 얘기하고, 그러면 일부 벌레들은 날개가 돋는 반면, 나머지 벌레들은 죽는다. 그 모든 예시가 지금 이때에 해당된다. 너희 사랑받는 자녀들은 두 눈 속의 빛이라고 불린다. 아버지가 말한다: 내 눈 속의 빛들아! 내가 너희를 나에게 속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런 아버지를 더 많이 기억할수록, 너희의 죄가 더 많이 없어질 것이다. 다른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으로는 죄가 없어질 수 없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실천 요지:

1. 살아 있는 한, 육체의식을 녹여버리려고 노력해라. 낡은 신발에 조금이라도 애착을 지녀선 안 된다.
2. 진정한 브라민이 되어 벌레들에게 지식을 봉봉거리며 들려줘서 그들을 너희 자신들 같은 브라민으로 만들어라.

축 복: 흔들림 없고 부동해져서 역경을 행운이라 여김으로써 믿음의 기반을 강하게 만들어라.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저 높이뛰기를 해라, 왜냐하면 상황이 오는 것도 역시 행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기반을 강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너희가 양가드처럼 강해지면 그때는 시험지들마저 너희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처음엔 그것들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올 테지만 그 다음엔 하인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들의 마하비르의 모습으로 그것들에게 도전해라. 물 위에 줄을 그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역경도 대양의 마스터인 너희를 공격할 수 없다. 너희 본연의 단계에 머뭇으로써 너희는 흔들림 없고 부동해질 것이다.

슬로건: 모든 이가 영혼의식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한결같이 초연한 상태에서 사랑해라.